

‘농가-소비자 상생’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급증

전남 농협 19곳 지난해 564억원
광주 13곳 매년 50% 매출 신장
대형마트 독점 대안으로 떠올라

화순군 도곡면에서 오이, 상추, 대파 등 농사를 짓는 송경미(59)씨는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Local Food) 직매장에 5년 전부터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250평(826㎡) 남짓한 매장은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온 소비자로 장사진을 이룬다.

송씨는 12일 오후에도 물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농가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가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우수농가상도 받았다”며 “판매처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입을 낼 수 있어 좋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농가는 안정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대형마트 독점구조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소농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고정적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양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전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선두주자는 단연 농도(農都) 전남이다. 전남에는 농협 전남지역본부 19곳 등 23개 매장이 지역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남에서는 담양 고서농협, 여수농협 등 총 19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매장의 최근 3년 간 판매 실적은 ▲344억(2016년) ▲427억원(2017년) ▲564억원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매년 수십 %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전남본부 제공>

(지난해)으로 매년 상승세다. 2016년 2547명이었던 참여 농업인은 올해 4041명으로 증가해 참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매장별로 보면 지난 2013년 9월 전남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담양 고서농협이 지난해 71억9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여천농협 67억9100만원 ▲여수농협 64억5500만원 ▲장성 남면농협 61억9000만원 ▲화순 도곡농협 57억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원예농산물이 300억원 넘게 팔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축산물 162억9300만원, 가공품은 96억9600만원 어치 팔렸다.

지난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 14곳 중 전남이 7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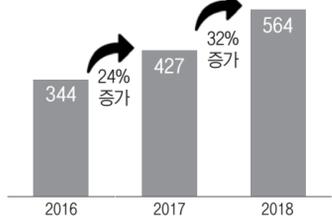
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담양 봉산·고서농협, 강진농협, 영광농협, 나주 산포농협 등은 1곳당 12억원을 지원받으며 분리형 매장·농가 레스토랑·교육시설·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데 있다.

담양 고서농협은 소비자가 직접 김치와 잼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화순 도곡농협 역시 커피 내리기, 딸기케이크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북구 두암동에 첫 로컬푸

■농협 전남본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추이 <단위:억원>



드 직매장을 낸 광주농협 역시 13곳까지 매장을 늘려가며 도시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4년 전부터는 광산구청 1층 등 6곳에 무인 매장을 운영하며 동네 곳곳에 지역 120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달하고 있다. 두암동 본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1억7800만원(2016년) ▲3억2200만원(2017년) ▲4억9900만원(지난해)으로 경증 뛰었다.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전체 매출은 ▲17억8300만원(2016년) ▲27억9400만원(2017년) ▲45억3800만원(지난해)로 매년 50%를 훌쩍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4월까지 19억77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실적 전망이 밝다.

지난 달에는 광주·전남지역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수안동 농협광주유통센터 1층 매장에 50평(165㎡) 규모의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원칙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소비자 참여형 행사를 늘리는 등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결렬에 국내 증시 4% 하락
증시 불확실성 ↑ ... 베팅보다 안전 투자
대형주 중심으로 단기 대응 분할매수 필요

연휴기간 동안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유예되고 있던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을 지난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글로벌증시와 국내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4.02% 하락해 2108.04pt로 마감했는데 장중 21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5.15% 하락하며 722.62pt로 마쳤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미국 기준 지난 10일 자정을 넘어 중국에서 출발하는 중국산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인상이 착수됐다.

협상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트럼프대통령이 판을 깬 이유는 무엇일까?

4월초까지만해도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해 연말 고비를 넘기면서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제기술이전 및 국영기업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필자는 여러 차례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보조금문제가 실질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과거 제조업은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여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 성장했다(한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하지만 중국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저임금을 활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가 경쟁자로 부각됐고 중국 제조업은 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중국 제조 2025’(제품을 생산할 때 핵심소재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를 자급하겠다는 구상)는 중국정부가 고된 끝에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세운 계획으로 달성을 위해 핵심 민영기업의 국영화, 보조금지급, 외국기업의 기술이전(무단 복제 포함)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술을 탈취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미국입장에서 중국의 산업구조개편성공으로 중국이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부각된다면 달러화가 세계 긴축통화로서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어 미국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은 수입국의 감정을 활용하여 중국을 최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고 쉽게 협상타결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시진핑 3기집권을 위해서 산업구조개편을 포기할 수 없어 미·중 무역협상은 중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중국과의 갈등구조해결 또는 완화가 필요하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협상 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80원을 넘어서며 급등했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가능성과 북한의 미사일(추정)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무역협상과 대북리스크에 따라 2분기중 1200원을 상회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미중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점진적으로 안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추가상승에 ‘베팅’보다는 안정 포인트를 찾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주에는 미중무역협상 불발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이 급속도로 냉각된다면 2000선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격 매도보다는 등락을 활용한 단기 대응이 유효해 보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덱스레버리지를 포함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점 분할매수가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장성 시작으로 고흥 등 9회 진행

전남 농촌마을에 의료·공인 봉사를 펼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장성군 삼서농협 대회의실에서 올 첫 ‘행복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장성 삼서면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복버스는 고령 농업인에게 의료 상담, 시력 검사,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7년째를 맞는 농업인 행복버스는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한다. 올해는 고흥·곡성·신안·보성·완도·장성·함평·화순 등 9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은 농업인들과 함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돋보기 안경을 선물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5월 농산물 애호박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5월 제철 농산물로 애호박을 선정했다.

애호박은 소화흡수가 잘되는 당질이 많고 비타민 A의 함량도 높아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애호박 개당 소매가격은 967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385원) 낮은 수치다.

공사는 재배면적이 늘고 대체재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애호박의 낮은 시세 원인으로 파악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월보에 따르면 겨울철 주산지인 경남 진주지역 재배면적이 늘었고, 애호박의 소비대체재인 주키니호박 생산량도 증가했다.

애호박의 효능·조리법은 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